

사순 제5주일

기도서 272 편
 제1독서: 이 사 43, 16-21
 제2독서: 필 립 3, 8-14
 복 음: 요 한 8, 1-11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권리국

편집실: 전주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새 생활

오 현 택 신부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제5주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으신 것은 온전히 우리 죄와 구원과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 지워진 죄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더구나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우리 각자에게는 파멸과 불행이 초래됩니다. 죄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웃과 하느님과 의 관계가 됩니다. 각자 개개인이 죄인일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주위에 죄가 만연될 때 우리 이웃들은 모두 불행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느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으며 오늘부터 새 생활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는 제2독서에서 진정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뿔박질 하자고 외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간음한 죄녀에게 가서 돌아가서 새 생활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어제 우리는 성요셉 축일을 지냈습니다. 성요셉을 보십시오. 성요셉은 우리 모든 신앙인의 표본입니다. 성요셉은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처럼 죄없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우리처럼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죄없이 일생을 마치신 복되신 분이십니다.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찬란하신 부인 성모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어도 성모 마리아를 세속적으로, 신앙적으로 평생 동정녀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성요셉이요, 그분의 신앙심과 착한 심성이었음을 우리는 참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굳은 신앙심 없이는 구원을 향한 뿔박질도, 새 일도 시작할 수 없고 더구나 새 생활이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앞두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찾고, 계획하여 실천하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신자가 됩시다. "어서 돌아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새 생활을 시작하십시오(요한 8, 11)".

(김계본당 주임신부)



제발 이르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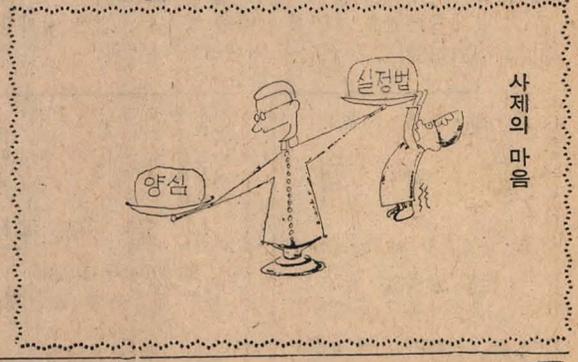
실속은 없이 겉만 꾸미는 것을 허식(虛飾)이라 한다. 손님을 접대할답시고 없는 처지에 빗 언어 잔치상을 차리는 것이 바로 허식이다. 일찌기 정부에서는 관혼상제에 지나친 경비를 들이는 우리네의 잘못된 습속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가정의례준칙을 만든 바 있다. 그 뜻은 좋으나 지나치다 보니 인정을 갈라놓는 폐단이 있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처지를 아는, 분수를 지키는 일이다.

손님을 맞기 위해서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은 기본적인 예의이다. 있는대로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바로 손님을 맞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서는 너무나 자주 겉꾸미는 일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꼴을 볼 수 있다. 특히 무슨 행사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행사를 갖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보자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찾기는 실로 어렵고 행사를 치렀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게 없다.

소년체전이 전주에서 열린다고 한다. 소년체전을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마 소년들의 체력향상과 특기신장을 통해서 국력을 높이고자 함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기자들의 재주와 힘겨움이 고작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언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골 국민학교의 운동회마냥 축제의 기분도 없을 소년체전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거기다가 소년체전을 위한 성금을, 그것도 정액의 성금을 걸으니 실로 마음이 착잡하다. (정액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이라지만 느낌은 그것이 아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성금이 정액(기준?)제가 되었다. 봉급의 몇%, 국민학생은 얼마, 이것이 어떻게 성금이 된다는 말인가! 이름이라도 바꾸어야 한다. 성금의 참뜻을, 고귀한 정성을 짓밟아 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제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숲 정 이 산책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성년 선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2년 11월 26일 추기경 회의록 폐막하면서 1983년을 특별 성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지 1950주년이 되는 해를 특별 성년으로 경축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업에 대한 보다 큰 공경과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성년은 성모영보 대축일인 1983년 3월 25일에 개막되어 1984년 4월 22일 예수부활 대축일에 폐막된다. 교황께서는 자신의 회칙인 '인간의 구원자'와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성년 거행의 지침으로 제시했다.

성년의 기원은 이미 구약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헤브레아 사람들은 7년씩 일곱 번이 지나는 해(실제에 있어서 50년이다)를 성년으로 지냈다. 레위법에 "오십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회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레위 25, 10)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헤브레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년은 휴식과 더불어 그들에게 붙여 먹고사는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교회는 이제까지 정기·특별성년 모두 합해서 26번의 성년을 지냈다. 첫번째 성년은 1300년 2월 22일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선포하였다. 처음에는 50년마다 성년을 지내다가 1425년부터는 25년마다 지내기로 결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25년마다 지내는 정기적인 성년 외에 특별 성년도 지내곤 하였는데 교황 비오 11세가 1933년 예수님의 구원사업 1천 9백 주년을 맞아 선포한 것과 금년의 1950주년이 바로 그것이다.

성년 기간에는 '로마'를 순례하고 또 다른 조건 즉 고백성사와 영성체 및 교황의 의향에 따라 성베드로, 성바오로, 성요한 라베란, 성모마리아 대성당을 방문하고 기도하는 신자들에게는 전대사(全大赦)가 베풀어졌다. 그리고 '로마'순례를 하지 않는 신자들도 고백성사와 영성체하고 또 지방 주교가 지정한 성당을 방문하거나 거기 공동체 전례에 참여해 교황의 뜻대로 기도하면 같은 대사를 받을 수 있다.

성년은 은총의 시기이고, 구원의 시기이다. 교회는 성년을 기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른하신 구원의 은총을 보다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사(大赦)를 윤택하신 것이다. 고백과 영성체와 교구장이 지정하는 성당을 순례하고 교황의 뜻대로 기도할 때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 전대사를 얻음으로써 모든 죄와 죄의 잠벌까지도 말끔히 사함을 받는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대사를 얻는 대열에 참여해야 하겠다.

25주년을 돌아보면서

김치삼 신부

요즈음 나는 가끔 한밤중에 잠이 깨어 홀로 있을 때가 많다. 이런 때는 지나온 나의 인생을 살펴보곤 한다. 아마 생(生)의 십자성이 나의 마음을 때리기 때문이리라. 50을 넘어선 생의 위기라고나 할까? 지나온 나의 생애중에 6·25사변 때의 일이 생각난다. 1950년 7월 28일로 기억되는데 서울 혜화동 교우집에 숨어있다가 공산당 내무서원에게 붙잡혀 지금의 중부서로 끌려가 지하실에서 호된 심문을 받고 눈을 떠보니 이북에서 피난 나온 박수사님도 붙들려 심한 고문을 당한 듯 고개가 쳐져있었다. 밤중에 끌려나간 그 수사님이 총살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찔해지며, 나도 죽느냐나 생각을 하니 주머니에 있는 목주가 나도 모르게 손에 쥐어졌다. 그때처럼 절실했던 기도는 아마 없었으리라.

그 이후 신학교 생활을 하며 많은 고민과 갈등을 느꼈으나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1957년 3월 19일 명동성당에서 영광의 신품을 받았다.

사제생활을 해오면서 1968년 2월 1일에 공군대령으로 군중간에 취임하던 때 서강대학에서 총재주교님을 비롯하여 육해공군 장교 장성들과 친지, 동료 신부들이 축하연을 베풀어 주었던 그 기쁨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반면에 두고두고 마음 아픈 일은 가장 아끼고 믿었던 사람이 이해관계로 하루 아침에 배은망덕한 배신자로 변했을 때였다.

군중생활 중 식당에 많은 언니들이 오고 갔다. 예쁜 언니는 음식을 못하고, 신앙심 깊은 언니는 사제생활에 많은 용기와 힘을 주기도 했다. 한 번은 시골에서 어떤 수고 언니가 왔는데 얼굴이 어찌나 못생겼는지 한마디로 맘에 들지 않는 형이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신자들은 이 구동성으로 아를 담고 예쁜 아가씨는 위험하니 호러워 음식 잘하는 이 언니가 적격이라는 것이다. 일은 이때 부터였다. 여자 손님만 오면 부엌에서 쟁그럼하는 소리, 숟가락을 내동댕이치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출근하려는 나에게 자기 가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끝날 내 맘을 호러놓곤 했었다. 그 날도 자기 동생이 병원에 있으니 방문해 달라고 울먹이며 사정하는 데도 나는 확 돌아서서 출근을 해버렸다. 종일 우울했고 퇴근해서 와 보니 언니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버린 뒤였다. 지금도 그때 왜 내가 좀더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았는 지 생각날 때마다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수고언니가 떠난 후 일년간을 외식하는 바람에 위장병이 생긴 나는 음식결단 가면 그 식당 냄새가 나서 배가 고파도 사먹게 되지를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는 일은 훌륭한 일이 못됨을 이제야 깨달음인가. 화려한 황금같은 세월 갖한들 무엇하리. "사람아 너는 흙이니..." 창세기 3장의 말 씀대로 정말 하느님을 떠난 인생은 한 줌의 흙이로다. (해성중학교 교장)

금·은·보석·시계는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염
(대지목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팔구)

- 혼수(회갑) 옷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
- 고급 침구류 |
- 각종 솜 일체 |
- 커튼지 |

서울 주 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길(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도(떡배)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화 06666~8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결혼매절, 제주도,
신혼여행 안내



□ 4지구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관공성사와 겸하여 개최

제4지구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가 21일(월) 중앙성당을 선두로 하여 개최된다. 이 기도회는 200주년 및 올 가을에 가지게 될 교구 신앙대회를 앞두고 중요한 신심운동이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기도회 동안에 바쳐지는 특별헌금은 교구 성지개발을 위하여 쓰여지게 된다.

일부 본당들은 기도회를 겸한 참회예절과 합동으로 관공성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자기 본당에서 기도회 하는 날 신자들은 관공성사를 보아야 하며 사정오로 제 날짜에 보지 못하는 분들은 성사표를 지참하고 기도회가 개최되는 이웃 본당에서 성사를 보실 수 있다. 각 본당의 기도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미 본당의 관공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기도회만 갖게 되는 본당은 본당 자체로 관공성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작시간 : 저녁 7시30분

3월 21일(월) : 중 앙-기도회만 합니다	3월 22일(화) : 전 동-기도회, 관공성사
3월 23일(수) : 서학동-기도회, 관공성사	3월 24일(목) : 노송동-기도회, 관공성사
3월 26일(토) : 덕 진-기도회, 관공성사	3월 28일(월) : 순정이-기도회만 합니다
3월 29일(화) : 북 자-기도회, 관공성사	3월 30일(수) : 파티마-기도회, 관공성사

□ 금암동 성당 및 이리 제3성당 기공식

날씨가 풀리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성전신축을 위한 기공식이 거행되고 있다. 19일 오전 11시에는 전주 금암동 새성당 기공식이 주교님의 주례로 있었다. 금암동 새성당은 중앙성당(주임-문정현 신부) 25주년 기념과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이리지역 제3성당 기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된다. 이리지역의 축원이었던 제3성당은 창인동성당(주임-김영신 신부)에서 분리되게 된다.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수고하실 중앙성당과 창인동성당의 신부님들과 교우분들께 성원을 보내 드립니다.

□ 성년 개회 미사-3월 25일 중앙성당

오는 3월 25일 성모영보 대축일에 시작하여 1984년 4월 22일 부활 대축일에 끝나게 될 성년 개회 미사를 전주 교구에서는 25일 오전 11시에 전주 중앙성당에서 교구 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및 평신도가 함께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시작한다.

교황 성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바치신지 195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을 성년으로 선포하시고 호든 이가 영신적 새신을 통해 성화됨으로써 이 해가 은총의 해요, 구원의 해가 되기를 희망하셨다.

교구 내의 순례성당 및 자세한 지침서는 차후에 발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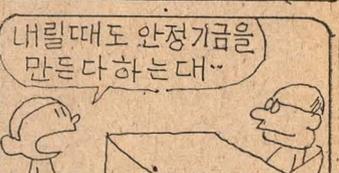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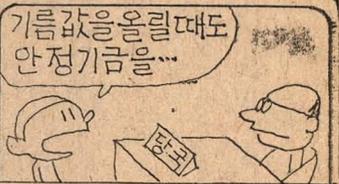
□ 나환자 정착촌에 성모유치원 개원

익산공소(삼례본당)에 있는 정착촌에서 치료활동을 하고 계시는 수녀님들께서 공소에 성모유치원을 22일에 개원한다. 아무런 시설과 비용이 없는 가운데 시작하는 유치원이지만 30명 정도 예상인원인데도 벌써 37명이 접수했다고 한다.

무료로 운영하게 될 이 유치원에 많은 독지가들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연락처 : 삼례성당(전화 2018번), 익산공소 수녀원(전화 3380번, 대체구좌-9023631, 대표-이명자)

요심이 (502) 김병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눈을 밝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렌타

질에서나 값에서나 정성을 다해드립니다.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 3032

윤(베드로) 종선

영업용, 가정용, 보일러, 온수기, 가스시설

삼영가스

☎ 6-7103

삼례 ☎ 3208

박찬연(에스텔)

신속 배달

독일 치질약 재입하

하이덴

여드름 치료제 입하

전주 시민약국

☎ ④ 0009 · ③ 3338

약사 김병익(마렐로)

모 집 공 고

당 업체는 섬유 수출 업체로써 참신하고 의욕적인 여성 근로기능 및 견습사원을 모집합니다

영화섬유공업사

전주시 서서학동 281번지 전화 ② 6047

대표: 오윤길(벨라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25일(금)은 단식재 권고의 날: 다음주 봉헌(인성회)

1. 평협 정기총회: 20일(월) 오전 9시30분, 가톨릭 센터
2. 참부모가 되는 길 강습회: 20일(월) 오전 9시~오후 6시, 회비-2,500원(1인당), 부부합계, 가톨릭 센터
3. 성령쇄신 피정: 21일~23일, 참가비-1만2천원, 장소-가톨릭 센터
4. 제 2차 사도회 각 분과위원장 연수회: 26일(토) 오후 3시~27일, 회비-7천원, 장소-가톨릭 센터
5. 농민회 회원 연수회: 28일~30일, 가톨릭 센터
6. 성심어고 신자동문회 임원 모임: 20일 오후 5시30분, 학교 종교감실

(중앙)

전화 0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한기호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김인협

- 신랑-김정호(스테이크), 신부-김경숙
11. 금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강기연 ②신철편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김성원 ②김인석
□ 지난주 봉헌금: 497,200원

(서학동)

전화 0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순교자 유해 순례: 23일 저녁 7시30분
①참회에절및 판공성사(전주시내 신부님들 합동고백 성사 중) ②단식 및 철야기도
 2.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
 3. 예수 수난(성지)주일: 다음주일 10시 공식미사전
 4. 부활절 성가연습: 매일 저녁 8시~9시까지
 5. 돼지저금통에 관심을 갖읍시다
 6. 구일기도: 레지오 단원 참석, 21일~29일 오후 7시
 7. 아치에스 행사: 27일 오후 2시, 단원 및 협조단원
 8. 차주전례: 독서-①강기호 ②김배근
- 지난주 봉헌금: 254,046원 교무금: 119,000원

(숲정리)

전화 0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유 0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사순절 신앙강연회: 23일 **후 130**
 2. 단식과 금욕의 날: 25일
 3. 사도회 각분과위원회: 25일 오후 8시
 4. 특별헌금 주일: 27일 불우이웃 헌금
 5. 복자 유해 순회기도회: 28일 오후 7시, 전신자
 6. 성지순례(27일): 오전 10시-성지축성과 행렬, 미사
 7. 부활 판공성사: 오후 3시~오후 6시
21일-진북2동 1·2구, 22일-진북2동 3·4구, 23일-진북2동 5·6구, 24일-진북2동 7·8구, 25일-진북2동 9·10구, 26일-초·중·고생, 28일-동양아파트·기타
 9. 차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정주복·이원길
기도-김남궁·장 삼
- 지난주 봉헌금: 151,935원 교무금: 389,000원

(전동)

전화 신부 0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부 0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0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피미시움: 오후 2시
 3. 글라라 헬레회: 다음주 오후 1시30분
 4. 전통 판공성사 및 유해 순회 철야기도: 22일
 5. 산상미사: 16~26일 재해 5시30분(주일, 23일 제외)
 6. 예비자 83년 1차 모집안내: 9월(복자축일), 4월모집 일반인(주부)-금요일 오전 10시30분, 직장인-금요일 오후 7시30분, 합반-일요일 공식미사 후
 7. 미사 변경: 21일부터 아침-5시30분, 저녁 7시30분
 8. 차주전례
아침: 해설-박종구, 독서-①최정식 ②이주영
공식: 해설-양현홍, 독서-①이영태 ②백종훈
저녁: 해설-김윤주, 독서-①김동수 ②이영철
- 지난주 봉헌금: 588,160원

(파티마)

전화 신부 00915

주임신부 김영일
수녀 0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미사시간: 21일, 22일 아침미사
 2. 영세예정자 특별교리: 23일~25일 오후 8시
 3. 예비자 영세: 다음주일 오후 1시30분, 유아세례결함
 4. 영세예정자 면접: 25일 2~5시, 26일 오전~오후4시
 5. 사도회: 다음주 밤 미사후, 교문·감사·장임위원
 6.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및 판공성사: 30일 밤 7시 27일까지 성사표를 가져가십시오
 7. 각분당 기도회 단체별 참가: 21일-구세주의 모친Pr, 22일-파티마의 모후Pr, 23일-에언자의 모후Pr, 24일-자비의 모후Pr, 25일-원죄없으신 모후Pr
 8. 치명자산 미사: 26일 오후 4시
- 지난주 봉헌금: 225,475원 교무금: 240,000원

(노송동)

전화 신부 00969

주임 신부 김웅태
수·사 07032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1. 복자 유해 순회기도: ① 공동 참회 예절-24일 오후 7시30분부터 전신자들의 공동 참회에절이 있음
② 발설기도-해당하는 시간에 참여하세요
 2. 사순절 특별강론: 오늘 공식미사후, 미사시간-10시
 3. 성전 청소담당: 순례의 모후Pr-21일과 26일(2일)
 4.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매월 분납 협조
 5. 아파트 소식: ①베소라 총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중고등부 학생회-주일 오전 9시
- 지난주 봉헌금: 312,386원, 아파트-42,120원
교무금: 148,000원, 아파트: 41,000원

(덕진)

전화 0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정양현
사도 회장 양상열

1.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개최: 일시-26일 토요일 저녁 7시30분, 주례-주교님 및 시내 신부님들 합동
※ 행사개요: ① 유해행렬(성당정문→성당안→재대)
② 말씀의 전례(참회에절) ③ 복자유해 경배
④ 성찬의 전례(미사후 단체별 철야기도)
 2. 반석회 웰레회: 공식미사 후
회원모집-30세이상 분당 남자(예비자 포함)
 3. 인성회 단식 권고의 날: 25일, 봉헌-27일
 4. 진북회 웰레회·부녀회 간부회: 다음주
 5. 빠진없이 봉헌금(신축헌금+교무금) 십일 바랍
- 지난주 봉헌금: 356,900원 교무금: 174,000원

(복자)

전화 0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사순절 피정: 26일 오후 7시·27일 오전 10시
3. 순교자 유해 각분당 순회기도: 29일 오후 4시(30분 전에 오실 것)
4. 부활 판공성사: 29일 저녁 7:30, 참회에절 (여러 신부님들이 성사 주임)
5. 성지순례단 시간연수: 25일 오전 6시30분까지 집합
6.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를 7시30분으로
7. 성주간 행사: 유인물을 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8. 성가연습: 성주간 및 부활성가, 21일부터
9. 단식과 금욕: 25일(인성회) 봉헌-27일
10. 축! 결혼: 26일 오전 11시(어머니성가대 수고바랍)